

은행권 '채용비리' 행장 줄소환... 국민·신한도 '식은땀'

금감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고발
檢, 합영주 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국민·신한도 강도높은 조사 예고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합영주 KEB 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은행권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가 전·현직 금융지주 회장이나 행장들의 구속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해 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 24일 최홍식 전 금융감독원장, 25일 합 행장, 29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30일 합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올 1월 하나은행에서 특혜채용 6건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대학 우대와 사외이사 지인을 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 전형'을 통해 합격시킨 것이 지적

〈은행권 채용비리 진행 현황〉

구분	검찰 조치 상황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 구속영장 기각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 구속
부산은행	박재경 지주 사장, 강동주 전 저축은행장 구속(현 보석 석방)
하나은행	합영주 현 행장 구속영장 청구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인사총괄 상무, 인사팀장 구속

을 받았다.

최 전 금감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실시된 2013년 하나은행 채용 특별검사에서도 3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합 행장과 김 회장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나왔으며, 남녀 차등채용도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채용비리 혐의에는 강력하게 반발했던 하나은행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영장실질심사는 6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합 행장의 거취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된 업무지원본부장은 직무가 해제됐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당시 이미 행장 자리에서 사퇴한 상태였다.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 역시 행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전직 행장 신분으로 구속이 됐다.

BNK부산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박재경 금융지주 사장과 강동주 전 저축은행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에 조용히 지나가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



KEB 하나은행 서울 을지로 신사옥.

/연합뉴스

구로 상황이 반전됐다"며 "조사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업무방해와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인사팀장과 HR 총괄 상무, 국민은행 전 부행장이 구속됐다. 특히 고발된 채용비리 중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마음을 놓기 힘든 상황이다.

그간 채용비리 무풍지대였던 신한은행 역시 이번엔 자유롭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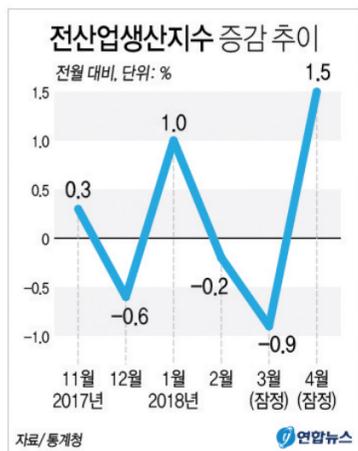
금감원은 지난 11일 신한은행과 관련해 1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적발해 검찰로 이첩했다. 2013년 채용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지원자를 임직원 자녀나 외부 추천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줬고, 서류심사에서 연령에 따라 차별을 둔 혐의다. 아직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조치는 없었지만 신한은행 역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산업생산 1.5% ↑ ...17개월새 최대폭 광공업·건설업 반등, 소비투자 하락

통계청, 4월 산업활동동향

전 산업생산지수 전월비 1.5% ↑
자동차·반도체 생산 증가 영향



지난달 광공업과 건설업 생산 증가로 전산업 생산지수가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2개월 연속 줄고, 소매판매도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는 등 투자와 소비가 동반하락해 당분간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1월에 1.6% 증가한 후 최근 1년 5개월 사이에는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올해 1월에 1.0% 증가했다가 2월과 3월에는 각각 0.2%, 0.9% 감소한 후 지난달에 반등했다.

통계청은 광공업과 건설업이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월에 2.2% 감소했던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 3.4% 증가로 반등했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전월보다 4.4% 늘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월보다 2.2%p 높은 72.5%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3월에 0.4%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은 2.1% 줄어 감소 폭이 2015년 6월과 같고 2013년 12월의 2.5% 이후로 가장 컸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다수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0.8% 감소했다.

이 업종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생산이 줄다가 올해 3월 5.0% 증가로 전환했으나 지난달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

수는 3월보다 1.0%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한 소매판매는 올해 1~3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달 감소로 돌아섰다.

가전제품 등 내구재(1.2%) 판매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6.0%) 판매가 줄었기 때문이다.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4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3월에 7.8% 줄어든 데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2.1%) 투자는 증가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17.4%) 투자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평균 항공기 수입(관세청 기준)이 올해 3월 2430만 달러에서 지난달 91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어윤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광공업과 건설업이 반등해서 전체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3월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던 제조업 가동률이 지난달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이 호전하면 가동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최신용 기자 grandtrust@

반도체 호조... 기업 체감경기 2개월 연속 ↑

한국은행

제조업 BSI 78, ESI 97.7 집계

기업 체감경기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제조업), 남북관계 개선(비제조업)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BSI는 78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전월(3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과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

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오른 77을 보였다.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6포인트 상승한 91를 기록했다.

반면 1차금속은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물량 제한 조치에 따른 타격 우려로 14포인트 급락하며 69를 기록했다.

비제조업은 82로 2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과학·기술이 6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설계, 감리 등 건설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소매업은 석탄, 화학제품 등 산업재 거래 호조와 휴일, 기념일에 따른 백화점 매출 증가에 힘입어 2포인트 개선된 87을 기록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더한 경제심리지수(ESI)는 0.2포인트 상승한 97.7로 집계됐다.

제조업체들은 경영여조사항으로 내수부진(21.6%), 불확실한 경제상황(12.6%), 경쟁심화(12.5%) 등을 꼽았다. 인력난·인건비 상승을 지적인 응답 비중은 9.2%로 1.2% 상승했다.

비제조업체들도 내수부진(19.7%), 경쟁심화(14.5%)를 우려했다. 인력난·인건비 상승(11.1%)은 0.6% 감소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30대 그룹 종업원 수, 5년간 3.6% 증가

도소매·금융보험업 주도

30대 그룹의 직원 수가 지난 5년 새 5만 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에 공개된 자산 순위 상위 30대 그룹의 최근 5개년 종업원수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27만8571명에서 2017년 132만4681명으로 3.6% 늘었다고 밝혔다.

2013년 대비 2017년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2만6797명(17.2%), 금융 및 보험업 2만1075명(3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만8951명(40.2%), 숙박 및 음식점업 1만4393명(36.8%) 순이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30대 그룹 내 해당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총합이 모두 증가하는 등 업황 호전과 포함기업 수 증가에 따라 종업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및 보험업은 2013년에는 30대 그룹내 해당 그룹이 미래에셋 밖에 없었지



만 2017년에는 농협,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이 포함되면서 종업원 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30대 그룹 총근로자 중 제조업은 47.6%(62만9954명)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제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19.9%)의 약 2.4배에 해당한다.

제조업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13.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8.3%), 금융 및 보험업(6.6%), 건설업(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3년 대비 2017년 업종별 종업원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은 1.6%p(포인트), 금융 및 보험업 1.4%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p, 숙박 및 음식점업 0.9%p, 건설업 0.5%p, 운수업 0.1%p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3.2%p,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2.2%p 줄었다. 특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27.4%p)과 1차 금속제조업(17.8%) 감소폭이 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5개년 30대 그룹 내 도소매업은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며 해당 기업수와 종업원수가 함께 늘었고, 금융 및 보험업은 이를 주력으로 하는 해당 그룹이 4개로 늘었다"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소매업 및 금융·보험 관련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미 기자 21cindium@